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③1 - 심통원 신도비(沈通源 神道碑)

# 조선중기 문신 휘(諱)는 通源이요 자(字)는 士容 예조참판, 한성부판윤, 우의정과 좌의정 지내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16호  
· 소재지: 소흘읍 이곡리  
· 건립연대: 1575(선조 8년)  
· 규모: 총고 343cm, 비고 180cm, 두께 32cm  
· 비고: 심진 찬(撰)· 심극명 서(書)· 심방전(篆)



소흘읍 이곡리에 위치한 심통원 선생 묘

심통원(1499~1572)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용(士容), 호는 만취당(晩翠堂), 본관은 청송(靑松), 순문(順門)의 아들이며 영의정 연원(連源)의 아우이다.



심통원 신도비

1537년(중종 32) 별시문과에 장원급제 1546년(명종 1)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한 뒤 우승지·좌승지·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이어 예조참판, 한성부판윤·우의정을 거쳐 1564년(명종

19) 좌의정에 올랐다가 기로소에 들어갔다. 이듬해에 왕의 외척인 윤원형 등과 권력을 남용했다는 탄핵을 받고 사직했다.

## 자유 기고

### 포천을 '토지거래와 개발 자유지역' 으로 포천남부지역을 '산림문화 혁신도시' 로 개발하자!



김창호  
경기북부대  
생물자원학과

지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과 '경쟁력 강화'라는 낱말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정치인 이 진정한 개혁과 경쟁력 강화는 맑은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닫힌 점포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다. 맑은 공장을 가동시키고, 빈 공장에 설비를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닫힌 점포의 문을 열게 하고, 잡초로 무성한 벌판의 농지에 씨를 뿌리는 사람, 민둥산에 사과나무를 심고 푸르게 가꾸며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개혁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토지중 일정한 규모(예를 들어 500평 미만)는 정부의 허가 없이 거래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다. 해외자본 유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토종자본이 마음껏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자본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해외기업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환경(공

단의 진일보 개선과 주변환경을 개선해 신바람 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포천시가 토지거래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다시 살아나고 포천시의 재정이 건실해 지며 금융업과 서비스업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포천시가 개발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도 없을 것이고 외국에 호환별장을 소유하지 않아 국부의 유출도 막을 것이다.

포천시의 절대녹지를 풀어도 될 만큼 새만금 간척지가 생겼고, 포천시의 군사보호구역은 쏘고 깎고 도시전과 현대전을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주변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개성에도 공단을 세워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각종 규제에 묶어두고 '세계 속의 경기도'나 '동북아 중심국가' 등을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환경NGO 단체와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국립 광릉수목원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산림생물기술연구소를 1급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산림청과 환경부를 통합시켜 산림환경부를 만들고 산림공학 인재를 육성시킬 산림고등학교와 산림전문대학 설립을 등을 벌이는 것이다. 포천시 산림조합이 각 읍면에 지점과 출장소가 설치해 임업자본 육성과 산림조합원의 확보와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도시와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관련 인재를 키워내야 할 때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우리 이웃의 삶의 질을 좋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 국립 광릉수목원과 산림생물기술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증액시키고 차관급 기관과 1급 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또한 포천남부지역을 산림문화혁신도시로 지정해 산림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시범적으로 포천에서 먼저 각 읍면에 산림조합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체국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은 산림조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물난리는 숲이 있어야 할 곳에도 건축물이 들어서 삼습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건

축물로 과밀화 되다보니 물은 오염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콘크리트 위의 물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골짜기 바다로 흘러가 물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물 부족문제를 해마다 반복되는 삼습적인 홍수문제의 해결은 숲의 조성과 산림지원의 확보로 가능하다.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와 열대화 그리고 이상기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환경관련 비용을 낮춰 국민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증대시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동안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북부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 세계대전을 막은 것처럼 "포천시민의 깨어난 힘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자"

## 교육에세이 ②

### 미래의 주인

조대형  
영고교과목교사



영국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토인비(Arnold Toynbee, 1825-1883, 경제학자, 사회개혁가, 사상가)는 "한 나라의 장래를 알고자 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들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오늘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 재벌그룹인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 카네기 철강회사 회장)재단의 연구팀이 연구·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거나 환경이 좋았던 사람은 20%에 불과했고 80%정도가 한결같이 좋은 인성과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 정보화 사회에서 빛어진 물질의 풍요함이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하며 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릇된 가치관과 인간성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형성시키느냐하는 문제가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인간으로 성장하느냐 보다,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욕심이 한 몫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지금 정보화·세계화의 물결속에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청소년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그 위에 꿩의 꿈을 실현해 가는 젊은이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먼저 사람다운 됴됨이로 인격을 쌓으면서 그 위에 꿩의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이 자기완성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의 생활 속을 파고들면 극히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가치척도나 문제 해결 방법도 물질적으로

그러나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소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꿈의 창조를 위해 참된 것을 찾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희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감동이 많은 종류의 답수생명을 포용하며 소리 없이 흐르고 있으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들은 강물처럼 묵묵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무언의 바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도덕심과 미래의 꿈과 건강한 정신력을 집념의 가슴속에 담는다면, 가장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옛 말씀에 "인생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이 소리들을 잘 듣고 담아두면 좋은 삶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오고 있는 미래는 꼭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 포천38선마라톤을 향해 무조건 뛰자

4년전 작은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고 늘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큰 아들의 권유로 2004년10월24일 한북마라톤에 아들은 하프, 저는 10km에 참가한 청사를 제출했다.

말만 들었지 47세의 나이로 마라톤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밤잠을 설치고 아침 6시30분에 아들과 회사직원이 함께 차를 타고 의정부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벌써 나와 있다.

가슴은 똥덩어리고 초조하고 시간은 빨리가고, 준비체조를 하고 나서 하프 먼저 출발하고 10km가 출발했다.

무조건 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작은아들을 생각하며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길거리를구며, 배구, 태권도, 축구, 달리기 무엇이든 잘하던 아들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으니 엄마라도 마라톤에 참가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다.

5km반환점을 돌아설 때 큰아들 회사직원이 "어머니 힘내세요, 잘 뛰시네요"하며 격려의 말로 용기를 주었다. 힘이 솟았다. "언덕 두 개만 넘으면 공설운동장이니 조금만 힘내세요"라며 같이 뛰어 주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한 마라톤에서 10km를 1시간2분에 완주하는 기록을 세우고 대회 있을 때마다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화천, 춘천, 장호원, 인천, 과천 등에서 개최한 10여개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앞으로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라톤은 계속할 예정이다.

이제는 기록도 단축되어 10km를 1시간 이내에 완주하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라톤을 함께 하고 싶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현재 포천마라톤클럽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011-9998-3052로 연락하면 된다.

오는 6월4일 포천38선마라톤대회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명순  
클럽회장

안전운행은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 새마음 · 새출발로 안전운행을 약속하는 새 포천고속관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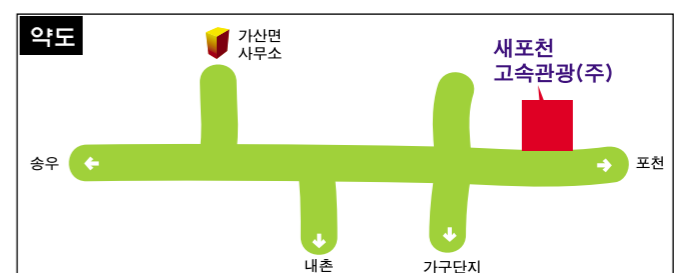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25인승 · 35인승 · 45인승

✓효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예약문의 031) 544-8888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